

+ 김석기 · KBS 제작송신시설팀

방송장비 국산화 관련 소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원천기술 또는 자체 제작능력 확보여부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유 기술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은 기업의 수익구조 외에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이며, 소수 메이저 업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주도하는 형국이다. 일부 국산장비가 판매되고 있지만 그 종류와 수량은 미미한 편이며, 업체 규모도 영세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주력 산업의 하나로 장비산업분야를 지정 육성, 방송·통신장비 국산화를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장비 국산화 현황

그동안 장비산업은 정부지원이 완제품이나 부품소재에 밀려 기술력 및 국산화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제품의 경우, 6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산업화 전략을 통해 90년대 이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실현했으나, 장비산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방송장비는 중국, 대만에도 밀리는 양상이며, 제작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22%(송신분야는 70%)로 이 중 비디오 모니터나 문자 발생기, DTV용 PSIP 제너레이터와 DTV 중계기 등 일부 장비들을 제외한 Video/Audio 믹서 및 카메라, 렌즈 같은 핵심장비는 기술력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비 업체 규모면에서도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본과 기술의 열세로 인한 R&D 투자가 미흡하고, 장비 판매 후 After-sale service 등이 열악하여 구매자와 운용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 제조사 대비 국산장비의 수준은 약 55%로 외산 대비 국산장비의 경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방송장비 국산화 추진 경과

2009년 들어 정부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장비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 관계자들과의 사전회의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지난 8월 26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8대 신성장동력 장비”에 대한 종합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 지원, 2) 경쟁력 있는 장비기업 육성, 3) 선 순환적 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종합전략으로 정했으며,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개발과정에 수요기업과 장비 제조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장비를 구매로 연결하는 “수요자 연계형 R&D”를 추진한다는 것과 국산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표준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09년 방송장비 개발은 방송사 요구 스펙을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는 등 제조와 수요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장비 분야의 경우 09년에 로드맵 및 종합계획수립, 수요자 맞춤형 방송 시스템 모델 발굴 및 방송장비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12년까지 수요자 연계형 R&D를 지속하여 차세대 방송장비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방송장비는 성능 및 제품의 신뢰성, 유지보수 역량 등이 중요시되는 첨단 분야로서 기술력 및 호환성, 미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속적 R&D가 담보되지 않는 한, 시장에 설 자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산화를 제고라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수요자 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규격통일, 제작사의 기술력 및 투자여력을 감안한 중장기적 대응으로 좁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개발 일체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제조사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주체별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과 국산장비 점유율 제고는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 8대 신성장동력 장비 :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장비, LED장비, 태양광장비, 바이오의료장비, 산업용장비, 방송장비, 네트워크장비